



국내 최고의 한국어·한국문화 연수기관

한국어문화교육원

김재욱 한국어문화교육원장
손호섭 사업본부운영2팀장

1974년 설립된 외국어연수원을 모태로 설립된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출신 외국인과 재외동포 교육생이 매년 4천여 명씩 배출되고 있다. 그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짧게 한국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속의 외대인으로 양성되고 있다는 건 한국어문화교육원의 독보적인 교육 노하우를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질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주춧돌 역할을 맡은 한국어문화교육원의 김재욱 한국어문화교육원장과 손호섭 사업본부운영2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선택한 최고의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문화교육원은 매년 4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그 시작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들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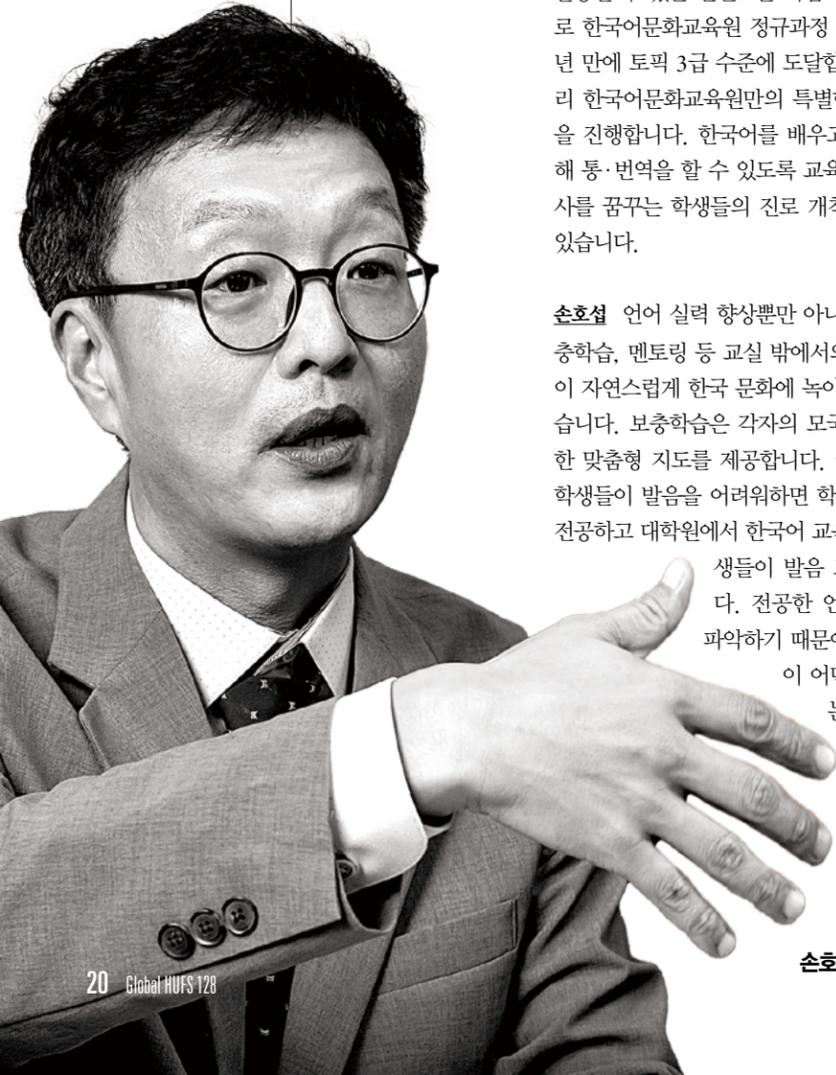
김재욱 한국외대가 1954년 개교한 뒤 1974년 외국어 연수평가원이 설립됐습니다. 처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건 1992년이었는데, 이후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이 점차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고자 2006년 한국어문화교육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재외동포 교육생을 매년 4천여 명 이상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이 매년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찾는 건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 문화 전파에도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생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학문과 진로에 있어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한국어문화교육원의 목표입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김재욱 원장님과 손호섭 팀장님의 역할을 들어보고 싶다.

김재욱 학부 때부터 꼽아보면 40년 넘게 한국어 교육 쪽에 입하다 보니 전 세계 한국어 교육 및 연구기관들과 연이 잘 닿아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대에 발맞춰 한국어문화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손호섭 저는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원장님이 큰 정책 방향을 마련하시면 구체적인 진행과 프로그램 제작, 해외기관과의 협상 등을 맡습니다. 또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라 비자, 기숙사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임직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장님과 해외 박람회에 참석해 한국어문화교육원을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보충학습, 멘토링 등 교실 밖에서의 체험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습득의 기회

타 학교 한국어교육기관을 찾는 외국인인 30여 개국에 그치지만, 한국어문화교육원에는 현재 58개국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선택하는 강점은 무엇일까.

김재욱 한국어문화교육원의 경쟁력은 한국외대가 축적해 온 언어 교육 전문성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경험은 한국어 교육에도 반영되므로 학생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로써 한국어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인정하는 토픽(TOPIK)시험의 1급부터 6급까지 단계별로 교육합니다. 커리큘럼마다 자체 제작한 교재가 있고, 강의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직접 마련합니다. 실제로 한국어문화교육원 정규과정 학생들은 평균 1년 만에 토픽 3급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문화교육원만의 특별한 통·번역 과정을 진행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모국어를 활용해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전문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호섭 언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보충학습, 멘토링 등 교실 밖에서의 체험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충학습은 각자의 모국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급반 학생들이 발음을 어려워하면 학부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발음 교정을 도와줍니다. 전공한 언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멘토링은 학습과 관련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손호섭 사업본부운영2팀장

교류하며 생활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험은 문화 엑스포, 체육대회 등을 열어 한국 문화를 즐겁게 배워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방문, 한국 음식 만들기, K-POP 댄스 배우기 등 흥미를 끌어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규과정, 통·번역 과정, 단기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각 과정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김재욱 정규과정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학문·취업·연구 등 실질적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입니다. 주 5일씩 10주간, 하루 4시간씩 총 200시간의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한국어문화교육원의 대표 과정입니다. 통·번역 과정은 정규과정 5급 이상을 수료하고 토픽 6급을 취득한 학생을 위한 최고급 과정(7급)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 통·번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통·번역 이론과 한국어 고급 문법 및 표현 학습,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한국어 사용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언어권별 통·번역 실습 기회까지 제공됩니다. 단기과정은 방학 등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씩 3주간, 하루 4시간씩 집중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기초 학습과 함께 주 1회 문화 체험활동이 제공됩니다. 그밖에 기관, 해외 대학 등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해 오면 그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2학년까지 학업을 마친 학생이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1년간(3학년 전체) 한국어 집중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성적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3+1 전공 학점취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상황과 국제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궁금하다.

*

명실상부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표준

그동안 거쳐 간 수많은 학생 중 기억에 남는 학생 혹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

김재욱 한글 자음 모음조차 읽지 못하던 학생이 불과 몇 주, 몇 달 만에 고급 표현을 구사하며 졸업 소감을 발표하는 순간이 우리 한국어문화교육원 구성원들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때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세계 속에 ‘친한파’가 늘어난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간외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인상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언젠가 훈훈한 가교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됩니다.

손호섭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공부한 뒤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한국외대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 교수가 된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도 한국외대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며 진정한 외대 동문으로 거듭나는 사례들을 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속에 외대 동문이 많다는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그 의미가 확대돼 전 세계에 다양한 국적의 외대 동문이 있다는 데 크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포부를 들어보고 싶다.

김재욱 지금까지 개척하지 않았던 더 많은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알리고 국내

김재욱 올해 전공 학점취득 프로그램에는 태국 까셋대학교에서 58명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과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본국에서 한국어를 충분히 학습해 온 학생들이지만 한국어문화교육원의 최고 수준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접하며 나날이 실력이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수강생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이 있었는지 태국의 랑싯대학교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MOU를 맺었고 프로그램 준비 중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중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우리 한국어문화교육원이 최초이자 유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손호섭 지난 7월 태국에서 박람회 가 있었는데, 지난해 국제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수료한 까셋대학교 졸업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할 겸 한국어대 대학원 과정을 상담하고자 찾아왔는데요. 한국어 교육 쪽으로 진로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원에 욕심이 났고,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당연히 한국외대에서 과정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보낸 1년이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효과와 동기부여를 높이고 우리 한국외대와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알리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관계를 넓혀가며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재욱 한국어문화교육원장

